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분석

The Ownership and an Assessment of th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문숙재
강사 김연정

Consumer Studies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 : Sook-Jae, Moon

Lecturer : Yeon-Jeong, Kim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the type and the amount of household's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for retirement fund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a individual pension account holding and an assessment.

Data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2,667 households from 1994 KHPS. Statistics employed to analyze the data are Mean, Frequency, Percentile, Logistic and OL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mong 2,667 households, 426 households(15.9%) owned the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Most household heads with individual retirement fund are the salaried and self-employed. More households with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have saving account, stock than those without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Age, occupation of household head, total income, stock ownership had significant effects on whether household having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And Age of household head, net worth, saving account ownership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ssessmen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holding.

I. 문제제기

1970년의 63.2세였던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1990년과 1995년에 각각 69세, 72.8세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7세로 전망되고 있다(동아일보, 1996, 7/5). 동시에 퇴직연령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퇴직연령인 55세에 비해 더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조선일보, 1996, 5/29), 중년기를 전후한 많은 가계들이 정규적인 소득 없이 생활을 꾸려나가야할 기간은 과거에 비해 더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녀나 친지에 대한 경제적 의존문제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민재성 외, 1993)을 경험하게 되는 노인가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은퇴이후 기간을 위한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은퇴소득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은퇴기를 전후로 한 가족생애주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Malroux & Xiao, 1995).

생명보험협회(1992)가 일반국민의 노후대책에 관한 조사에서 노후방안으로써 가족에 의존하는 해결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22.8%)이나 연금(25.8%) 또는 보험(15%) 등의 금융상품을 제시하였다.

현재 노후의 경제안정을 결정하는 소득보장의 수단으로는 주로 개인의 주택과 저축 등의 금융자산이며, 향후 가장 보편적인 소득보장 수단으로는 사회와 그 책임을 나누는 각종 연금제도를 통한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유비롱, 1993). 연금제도는 개인이 노인연령, 또는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의 기간동안 일정부분의 수입을 적립하여 노후의 특정연령부터 사망시까지 매달 정해진 수준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김기홍·안종범, 1993).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은 반드시 퇴직이나 은퇴전 소득의 100%까지 보장될 필요는 없으며, 퇴직자의 경우 소비패턴은 변화하고 저축성향이 감소하며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퇴직전과 유사한 생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김기홍 외, 1993). 노후소득보장안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제시되어온 국민연금은 최종급여의 40%수준을 보장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생명보험사, 은행 등에서 개발된 연금 형태의 보험상품들은 상품의 계약기간이나 장기인플레이에 대한 대응장치 등에서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고 연금으로 급부되는 비율이 낮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개인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최광 외, 1992).

따라서 기존 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세금혜택등의 수혜를 주어 각자의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의 개인연금 제도인 IRA, 401(Keogh) plan 등과 같은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되었다.

개인연금제도가 실시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노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후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 약화로 본인이 노후생활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며 둘째, 기존의 연금지급액이 최저생계비 보장수준에 있고 셋째, 농민, 자영업자 등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후대책으로 필요하게 되었다(조흥은행, 1994).

이러한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방안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수준을 노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전략이라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보유는 가계포트폴리오 투자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형성 또는 연금이 마련된 이후에는 준비된 자금으로 장기간에 걸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자산관리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기의 자산관리는 자녀에 대한 증여, 사회활동의 감소, 자산관리를 위한 정보부족, 인플레이션,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자산관리의 위험성이 존재하기(유비롱, 1993) 때문에 가계의 자산분배형태도 노인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계의 투자 포트폴리오 결정은 가계의 경제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며 가계가 독특하게 보유하고 있는 재무목표와 욕구에 따라 각기 다른 재무자산을 선택하여 보유한다는(Xiao, 1995) 점에서 우리나라 가계의 은퇴준비를 위한 자산관리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가계가 수여 받는 연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연금재정에 관련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민재성·김용하, 1991), 공적연금의 최적급여구조에 관한 연구(유일호, 1989),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국민연금 가입자 가계를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최재성, 1992)등과 같이 주로 공적연금에 관한 내용과 거시 경제적 입장에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설계의 일환으로써 은퇴준비를 위한 사적연금으로 도입된 개인연금 보유 여부와 불입액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적인 노후소득보장안으로써 새롭게 소개된 개인연금의 보유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민연금이나 교원/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에서 배제된 가계의 경제적 필요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개인연금의 도입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원하는 가계들의 경제적 욕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무자산을 선택하는 가계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후준비를 위한 3층보장론의 관점에서 본 개인연금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체제로 제시되는 3층보장론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업에서 보장하는 기업연금 및 개인들이 자의에 따라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

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금의 수혜는 2008년경에 가서야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며 급부수준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적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아직 기업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일시불 형태의 퇴직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퇴직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를 연금화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과 이에 해당되더라도 자신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설계에 맞추어서 필요한 만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장기간의 준비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 대응장치로서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기홍 외, 1993; 유비룡, 1993).

이러한 맥락에서 1994년에 도입된 개인연금은 노후대비 가계자산관리행동의 중요한 자산분배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개인연금은 가입시 연금준비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 대책으로써 연간불입액의 40%정도의 세금공제혜택과 연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봉급생활자 외에 기존의 국민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소득자, 자유직 종사자에게도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기존의 연금제도와 차별화 된다. 개인연금의 지급 개시연령은 55세-65세로 매월 100만원 이내의 납입액과 중도해약금지, 일시금 수령금지 장치를 함으로써 현행 단기 저축관행을 연금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40대 후반 연령층이 노후생활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45세이상의 저축기간을 줄여주고 있어(조흥은행, 1994), 노후대비 투자안으로써 가입자에게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2. 선행연구고찰

가계의 장기적인 노후준비와 절세효과를 제공하는 투자전략으로써 도입된 개인연금보유에 관련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계의 포괄적인 저축 및 투자행동에 영향 미치는 변수로 연령, 성별, 취업상태, 교육, 가족크기, 결혼상태 등(Hogarth, 1991; Chang, 1994; Xiao, 1995에서 재인용)으로 나

타났다. Evans, Ekerdt & Bosse(1985)(Malroux & Xiao, 1995), Kilty & Behling(1986), Richardson & Kilty(1989)는 은퇴준비는 전형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며, 특히 중년기 이상의 연령집단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다고 하였다. 특히 Weagly & Gannon(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연금제도인 IRA와 Keogh plan 등은 50-6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구주의 연령과 정적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 & Scholz(1994)는 IRA 투자액에 연령은 47세에 최고를 이루다 감소하는 \cap 자형을 보이며, 교육수준과 소득 모두 IRA 투자보유액에 정적인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Beck(1984)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과 직업상의 지위가 높은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은퇴준비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연금방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Richardson & Kilty(1989)는 가계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지 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은 노후연금계획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척도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Marloux & Xiao, 1995에서 재인용), Xiao(1995)는 장래의 경제수준에 대한 인지도를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을 결정하는 주요변인으로 설명하였다. Hubbard(1984)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항상소득이 IRA와 Keogh plan의 보유확률에 정적 영향력을 제시하였으며, Collins & Wyckoff(1988)도 교육수준, 가구주연령, 가계총소득, 유동성 자산의 IRA 보유확률에 대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냈다(Hubbard, Skinner & Zeldes, 1994에서 재인용).

소득과 부(wealth)는 가계투자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소득은 가계의 저축 및 투자수준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very & Kennickell, 1991; Chang, 1994; Davis & Schumm, 1987; Foster, 1981; Hefferan, 1982; Xiao, 1995에서 재인용), 다양한 가계자산의 보유수준(Hira, 1987)에도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Xiao, 1995에서 재인용).

반면 Weagly & Gannon(1991)은 가계재무자산을 저축, 주택, 재무증권, 은퇴투자로 분류하여 가계의 부가 많을수록 미국의 개인연금제도인 IRA나 Keogh

plan과 같은 은퇴투자 등과 같은 보장성이 강한 안전자산 보다는 증권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Zhong & Xiao(1995)는 노후를 대비한 개인연금인 IRA를 보유한 사람들이 IRA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식투자액이 증가한다고 하여, 가계가 주식 투자를 은퇴기금을 위한 대체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Xiao(1995)는 가계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가지 유형의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가계로 하여금 다른 유형의 자산을 소유할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저축을 할 경우에는 IRA의 보유 확률이 적으며, 주식과 채권, 보험을 가진 경우는 보유 확률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Ramaswami, Srivastava & McInish(1992)는 가계가 지향하는 포트폴리오 목적과 자산보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장·단기 재정 목표에 따라 주식보유를 장기적 투자시간(time horizon)을 갖는 미래대비 투자로 인식하였고, 저축 등은 현재의 생활수준 유지와 미래의 투자 모두를 위한 자산보유라고 설명하였다(Xiao, 1995에서 재인용).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가계재무설계의 일환으로써 가계의 사적인 노후소득보장안으로 도입된 개인연금에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계가 가입하며, 그들의 개인연금 총불입액에 어떤 요인들이 결정변수로 작용하고 있는가? 와 개인연금의 보유가 다른 투자자산보유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한 연령집단별로 개인연금 보유여부와 총불입액에 대한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여부와 총불입액으로 보았으며,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에는 거주지역, 가구주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경제적만족도, 1년후의 경제수준

전망, 그리고 재정변수로는 가계총소득, 순자산, 예금, 주식의 보유 유무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원이 없는 미취업자, 무급의 가족종사자 가계를 제외한 유급직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로 제한한 이유는 본 연구가 개인연금의 가입유무를 은퇴이후 노후준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종속변수	
개인연금 가입유무	1=유 0=무
개인연금 총불입액	가계가 개인연금에 불입한 총액수
연령별 개인연금 가입유무	1=유 0=무
연령별 개인연금 총불입액	연령별로 개인연금에 불입한 총액수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거주지역	1=광역시 0=기타지역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 중졸이하	1=해당 0=비해당
고졸	1=해당 0=비해당
전문대졸 이상	1=해당 0=비해당
가구주 직업 : 봉급생활자	1=해당 0=비해당
자영업	1=해당 0=비해당
농림수산/비정규직	1=해당 0=비해당
경제적만족도	현재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1-5점) ^a
1년후의 경제수준 전망	1년후의 경제생활전망(1-5점) ^b
재정변수	
가계총소득	근로소득+자산소득+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년)
순자산	총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부채(만원)
예금보유 유무	1=유 0=무
주식보유 유무	1=유 0=무

a: 1. 매우 불만족스럽다 3. 보통이다 5. 매우 만족스럽다.

b: 1. 매우 나빠질것이다 3. 올해와 비슷할 것이다 5. 매우 좋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4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로 가계 및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조사로 다단계 층화 확률 표본방식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추출한 일반가구 3,625가구로 구성된 자료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가구주가 현재 기혼의 상태에 있고 유급직에 종사하는 2,667가구로 구성되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중 현재 은퇴한 가계나 현재 소득

비를 위한 가계재무설계 방안의 대응변수로 보았기 때문이다. 연령별 분석에서 집단구분은 우리나라 중년기 연령(김명자, 1987)과 도시가계연보의 연령구분을 기초로 하여 35세미만, 35세-44세, 45이상의 가계로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2) 분석방법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를 산출하였고,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가계의 개인연금 가입여부는 이항변수이므로 영향요인의 분석을 위해 logistic 분석을 적용하였다.

개인연금 총불입액은 OLS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연령별 분석에서도 동일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전체가계의 15.9%인 426가계였다. 거주지역은 광역시와 기타지역에 고루게 분포되었으며, 가구주의 직업은 봉급생활자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개인연금 보유가계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상이 88.3%로 1995년도 [생명보험 전국성향조사]의 88.8%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과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계와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IV. 분석결과

1.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가계의 금융기관별 불입액

개인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을 살펴보면 전체가계와 모든 연령층에서 보험회사의 선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은행을 많이 선택하였다. 보험회사의 가입이 가장 많은 것은 생명보험사등 기존의 연금보험과 같은 보험상품이 노후보장에 가장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며, 가입자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 속 변 수	보유가계 (N=426)		비보유가계 (N=2,241)		전체가계 (N=2,667)		
	Mean	S.D.	Mean	S.D.	Mean	S.D.	
경제적 만족도	2.78	0.87	2.72	0.83	2.73	0.84	
1년후의 경제수준 전망	3.12	0.67	3.03	0.65	3.04	0.66	
총소득	2,630	1,563.37	2,000	1,392.54	2,099	1,439.58	
순자산	6,114	7,196.39	5,333	1,563.37	5,457	6,855.69	
범 주 형 변 수	N	%	N	%	N	%	
거주지역	광역시	239	56.1	1,189	53.1	1,428	53.5
	기타	187	43.9	1,052	46.9	1,239	46.5
가구주 연령	20대	28	6.5	116	5.2	144	5.4
	30대	248	58.2	894	39.9	1,142	42.8
	40대	102	23.9	566	25.3	668	25.1
	50대이상	45	11.2	665	29.6	713	26.7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이하	71	16.7	756	33.7	827	31.0
	고졸	197	46.2	946	42.2	1,143	42.9
	전문대졸 이상	158	37.1	539	24.1	697	26.1
가구주직업	봉급생활	236	55.4	1,043	46.5	1,279	48.0
	자영업	157	36.9	663	29.6	820	30.7
	농림수산업/비정규직	33	7.7	535	23.9	568	21.3
예금보유	유	318	74.6	1,366	61.0	1,684	63.1
	무	108	25.4	875	39.0	983	36.9
주식보유	유	49	11.5	110	4.9	159	6.0
	무	377	88.5	2,131	95.1	2,508	94.0

〈표 3〉 가구주 연령별 개인연금 가입율과 선택된 금융기관의 빈도 및 총불입액

(단위:만원)

금 용 기 관	전체가계 (N=2667)		35세미만 (N=699)		35세-44세 (N=973)		45세이상 (N=995)	
	N (%)	평균 불입액	N (%)	평균 불입액	N (%)	평균 불입액	N (%)	평균 불입액
은 행	99(23.2)	49	36(24.7)	38	38(19.3)	41	25(30.1)	65
투자신탁	12(2.8)	55	4(2.7)	24	6(3.0)	114	2(2.4)	32
우 체 국	5(1.2)	33	2(1.4)	30	1(0.5)	-	2(2.4)	13
농,수,축협동조합	9(2.1)	78	1(0.7)	15	4(2.0)	54	4(4.8)	20
보험회사	294(69.0)	154	102(69.9)	102	46(74.1)	154	46(55.4)	269
기 타	7(1.6)	129	1(0.7)	60	2(1.0)	65	4(4.8)	195
총불입액	426(100)	123	146(100)	82	197(100)	126	83(100)	195
개인연금 가입율	15.9%		20.7%		20.2%		8.3%	

사망하거나, 질병·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로 보험금을 받는 혜택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회사를 선택한 가계들의 평균불입액 역시 다른 금융기관액의 개인연금 투자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별 개인연금 가입율을 살펴보면 35세미만의 가계는 20.7%, 35-44세 가계는 20.2%, 45세이상의 가계는 8.3%로 나타나 연령증가에 따라 각 연령별로 전체 가계수 대비 개인연금 가입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계의 평균 개인연금 불입액은 123만원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추이를 살펴보면 35세미만이 82만원인데 반해 45세이상은 195만원으로 개인연금 가입율과 반대로 연령증가에 따라 총불입액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세이상의 중년기 가계의 가입율은 가장 낮았지만 총불입액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연령대에 비해 개인연금을 수혜받는 시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회사의 평균 불입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가계와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¹⁾ 4가지 Logistic 모형의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냈다.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중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 직업이 개인연금 보유여부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즉, 가구주가 젊을수록, 붕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할 때 개인연금의 보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부적인 영향력은 개인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안과 실명제 실시이후 저축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주들이 장기적인 재무설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개인연금이 제공하는 세금공제라는 절세방안의 특징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장년의 노인가계들은 55세부터 지급되는 개인연금의 특성상 지불기간이

1) Logistic 회귀분석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2 log likelihood ratio와 concordant ratio로 추정되며, log likelihood ratio의 유의도로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concordant ratio가 50%이상이면 현재의 추정모형으로 관찰치를 적절하게 예측했다고 평가한다(SAS/STAT User's Guide, 1989)

너무 짧고 젊은 연령층에 비해 노후준비안으로 이미 특정한 금융상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더 큼으로, 새로운 노후준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은퇴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Fillenbaum 외(1985) (Malrouu & Xiao, 1995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개인연금이 새롭게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노후소득보장안에 다른 정책적인 목적도 공유하므로 노후준비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고연령층 가계일지라도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거나 보유할 필요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해석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구주 직종에 따른 개인연금 보유확률의 차이는 개인연금이 도입목적대로 기존의 각종 연금혜택에서 배제된 자영업자의 연금수혜 방안으로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재정관련 변수에 있어서는 가계총소득이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주식의 보유 유무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가계의 총소득이 많을수록,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개인연금의 보유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식과 개인연금이라는 각기 다른 자산보유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 개인연금인 IRA의 보유 여부와 주식보유액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제시한 Zhong 외(1995)의 연구, 주식과 보험을 가진 경우에 IRA의 보유확률이 높아진다고 한 Xiao (1995)의 연구, 주식보유를 장기적 투자시간을 갖는 미래대비 투자로 본 Ramaswami 외(1992)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한편, 가계총소득의 정적인 영향력은 가계가 보유한 소득과 부가 많을수록 노후를 위한 재무적 준비에 적극적이라는 Turner, Bailey & Scott(1994)의 연구와, IRA 보유확률에 대한 향상소득의 정적 영향력을 제시한 Hubbard(1984)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고령의 연령층보다 젊은 연령층 가계에서 과거에 비해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보다 빨리 인식하기 시작하고 개인연금이 제공하는 부가적인 혜택의 경제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봉급생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그

리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젊은가구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명예퇴직으로 인한 높은 조기은퇴의 가능성에 따라 개인연금이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안과 함께 저축성의 비상기금으로써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35세미만의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에 대한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정변수로는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두 투자자산을 각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생각하기 시작할 35세-44세 가계와 노후준비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가 요구되는 45세이상의 두 연령층가계 모두 가계총소득이 많을수록 개인연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5세이상의 가계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연금의 보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44세와 45세이상의 연령가계에서 가계총소득이 개인연금 보유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결과를 35세미만 가계와 연결시켜 볼 때 매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이 두시기는 35세미만 연령대의 가계보다 소득수준이 안정적이고 향상될 여건이 마련된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총소득이 많을수록 기존의 자산운용방법외에 새로운 금융상품의 이용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45세이상의 연령가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식을 보유한 가계가 개인연금을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아 경제적 자산이 풍요할 때 자산이 갖고 있는 특정한 위험허용도내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산군을 다양화한다는 기본적인 자산분배모델(Asset Allocation Model) (Mitra, 1993)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요약하면, 연령별 개인연금 보유여부에 대한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의 영향력은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부적인 연령대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재정변수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 중 주식의 보유는 35세-44세 연령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개인연금 보유유무

〈표 4〉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 유무에 대한 logistic 분석결과

독립변수	전체가계		35세미만		35세-44세		45세이상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Estimate	S.E.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가구주 연령	-0.03***	0.01	-	-	-	-	-	-
지역(기타지역)	0.18	0.12	-0.12	0.19	-0.34	0.58	-0.07	0.26
가구주 (중졸이하)								
교육수준 고졸	0.07	0.17	-0.42	0.39	0.10	0.18	-0.29	0.29
전문대졸 이상	0.23	0.19	-0.19	0.40	0.38	0.24	-0.01	0.37
가구주 (봉급생활자)								
직업 자영업	0.35*	0.13	0.19	0.24	0.37	0.27	0.22	0.27
농림수산업/비정규직	0.28	0.24	0.07	0.54	0.31	0.19	0.45	0.39
경제적 만족도	-0.03	0.07	0.03	0.12	-0.09	0.35	0.01	0.16
1년후의 경제수준 전망	-0.03	0.09	0.05	0.16	-0.16	0.11	-0.27	0.19
재정변수								
가계총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순자산	4.71E-6	8.737E-6	0.000	0.00	-3.418E-6	0.00	-6.48E	0.00
예금보유 유무	0.12	0.13	1.00*	0.23	0.36	0.20	0.64	0.27
주식보유 유무	0.54*	0.20	1.05*	0.33	-0.05	0.31	1.00*	0.45
상수	2.149***	0.52	2.80***	0.72	3.33***	0.58	4.58**	0.75
-2 Log Likelihood	357.053***		50.077***		152.301***		92.591***	
Concordant	77.3%		68.6%		76.5%		79.7%	

* p < .05, ** p < .01, *** p < .001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오직 35세미만 가계에서만 예금의 보유가 유의한 영향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별로 소득과 함께 다른 투자자산안의 보유유무에 따라 가계 투자방안의 다양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가계의 개인연금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연금의 투자액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가계의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의 영향력은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beta=.12$) 개인연금 불입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변수의 경우에는 순자산이 많을수록($\beta=.22$), 예금을 보유한 가계($\beta=.11$)가 개인연금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구주 연령의 정적효과는 개인연금이 대략 55세 이상부터 매달의 연금형태나 일시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기간이 짧아져 일정시기 이후 받는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수혜받기 위해 짧은 기간만큼 더 많은 액수를 적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Gale & Scholz(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개인연금 총불입액에 대한 순자산의 정적인 효과는 투자자산액에 대한 자산 및 부의 정적인 영향력을 제시한 Hefferan(1982), Hira(1987)의 연구와 일치하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은퇴자산의 투자비율이 순자산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Weagly & Gannon(199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보장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투자형태로 이러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장기적 재정목표인 노후대비 안으로써 보장성이 큰 개인연금에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금융상품중 Garman & Fogue(1994)의 안전자산의 분류 범주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후대비 자산으로써 개인연금 불입액은 보장성이 강조되는 안전자산의 의미로 가계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순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연금 불입여력도 향상됨을 시사해 주고있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우선 35세미만 가계의 경우 총불입액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는 순자산만이 정적관계를 보였다. 35세-44세 가계의 경우는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중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재정변수에서는 순자산만이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즉 35세-44세의 비교적 젊은 가

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가계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가계의 경우 개인연금에 투자하는 액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35세-44세 연령층은 자산투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수준의 자본투자를 통한 자산증가의 가속기(acceleration stage)(Mittra, 1993)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중졸자에 비해 자산관리의 기회나 전문적인 지식으로 보다 향상된 자산관리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가계에서는 수익성보다는 보장성이 강조되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개인연금에 적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에 따라 수익성과 보장성 및 안전성의 자산운용방안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표 5〉 가계의 개인연금 총불입액에 대한 중회귀분석 분석 결과

독립변수	전체가계 (N=426)		35세미만 (N=146)		35세-44세 (N=197)		45세이상 (N=83)	
	b	β	b	β	b	β	b	β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가구주 연령	2.63	0.12*	-	-	-	-	-	-
지역(기타지역)	7.46	0.02	8.68	0.04	-2.45	-0.01	77.9	0.13
가구주 (중졸이하)								
교육수준 고졸	-18.8	-0.07	-18.6	-0.12	-75.9	-0.27*	59.8	0.10
전문대졸 이상	-42.9	-0.14	-54.8	-0.29	-102.6	-0.34*	65.1	0.14
가구주 (봉급생활자)								
직업 자영업	30.2	0.09	26.2	0.12	16.1	0.07	57.6	0.12
농림수산업/비정규직	11.9	-0.01	-47.5	-0.11	25.7	0.05	37.7	0.05
경제적 만족도	6.79	0.03	10.3	0.05	8.43	0.04	34.8	0.13
1년후의 경제수준 전망	-16.3	-0.07	-18.4	-0.10	-20.0	-0.09	-16.51	-0.04
재정변수								
가계총소득	-0.00	-0.07	0.01	0.08	0.01	0.09	-0.04	-0.30
순자산	0.01	0.22**	0.00	0.19*	0.00	0.26**	0.00	0.14
예금보유 유무	37.4	0.11*	3.05	0.05	12.6	0.04	117.81	0.21
주식보유 유무	-8.72	-0.02	-17.0	-0.07	-19.5	-0.05	44.56	0.02
상수	8.16		102.56		166.69		35.85	
R ²	0.1208***		0.1322*		0.1201*		0.1779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투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Weagly & Gannon (1991), Garman & Forgue(199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액도 증가하였다.

한편 45세이상 연령집단의 경우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한 연구모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여부, 불입액 및 그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후준비 상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인연금이 사회정책적으로 노후준비 정책안으로써의 의의가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인연금 가입 여부에 영향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연금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가계에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은퇴이전에 있는 조사대상 2,667가계 중 개인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는 426가계로서 15.9%를 차지하였다. 개인연금 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중에서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이었고, 재정관련 변수 중에서는 가계총소득, 주식보유 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젊을수록, 봉급생활자 보다는 자영업자인 경우,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개인연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 총불입액의 경우,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 중 가구주 연령이, 재정변수로는 순자산, 예금보유 유무가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개인연금 보유여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것은 가계총소득과 주식보유 여부이며, 총불입액의 경우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개인 및 가계관련변수 보다는 재정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마련된 사적연금 체제인 개인연금이 본래의 도입 목적대로 장기적인 생활대책 마련을 위한 보장성이 강한 노후소득방안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잘 맞음을 알 수 있다. 이점은 기존의 국민연금, 사학·공무원·군인연금, 보훈연금이나 회사 퇴직금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 직업군의 높은 가입확률을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개인연금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안으로써 연금제도의 대중화에 더 한층 다가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령을 살펴 보았을 때, 연령빈도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이상, 20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을 기준으로 당시 연령이 35세, 40세, 45세인 경우 개인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이때부터 적립한다고 가정함으로써, 60세까지 최대 가입기간이 각각 25년, 20년, 15년이 되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김기홍 외, 1993)에 잘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에 따라 개인연금 보유확률에 대한 가구주 연령의 부적인 영향력은 많은 가계가 30대-40대의 생애중반기간에 노후소득보장방안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노후준비를 시기적으로 앞당겨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외에 젊은 연령층이 고령층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율이 높이나 타난 또 다른 이유는 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세 공제와 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인플레이션지 보장책과 같은 가계의 경제적 실익이 노후준비라는 본연의 목적과 함께 부가적인 유인책(incentive)으로써 실명제 이후 안정적인 저축액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잘 맞물려 가고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셋째,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할수록 개인연금을 보유한다는 연구결과와 연령집단별로 개인연금의 보유 여부에 각기 다른 자산안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흥미

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저축에 대한 생애주기설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간의 차이를 무시하여 각기 다른 자산에 있는 현금의 양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Xiao, 1995).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가족생애주기와 보유하고 있는 자산범주에 따라 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할 기회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가 현재 주어진 경제적 조건과 투자한 자산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자산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계가 투자전략을 세울 때나 조인할 때 각 가계의 특성에 맞는 투자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사적연금 제도인 개인연금을 노후준비의 대리변수로 살펴보았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전체가계의 15.9%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 그 수혜가구가 적으며, 사적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아직 초보상태에 있어 노후대비안으로써의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연금에 대한 초기 연구라는 제한성 때문에 우리의 실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연구로서의 한계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로서 노후준비정도를 잘 반영하는 금융자산 및 순자산과 비교분석을 한다면 노후준비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 경제학 등에서 연금제도를 거시 경제적 시각에서 연구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가정경제학의 가계재무설계의 한 방안으로 연구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기홍·안중범(1993).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개인연금제도의 도입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2) 동아일보(1996). 7월 5일자 '60년대 이후 사회-경제변화 통계'.
- 3) 민재성·유일호·최재성·김용하(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한국개발연구원.
- 4) 조선일보(1996). 5월 29일자 '노후대책의 기본전략-52세 공기업체 과장의 명예퇴직 후 노후설계'.
- 5) 조흥은행 개인연금 안내서(1994), 조흥은행.
- 6) 유비룡(1993). 최근하(1993),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재산형성과 관리 비평. 한국노년학 13(2), 183-191.
- 7) 유일호(1990). 공적연금의 적정급여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8) 최광 외(1993).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향: 개인연금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9) 최성재(1992).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10) 한국보험협회(1995). 생명보험 전국성향조사. 한국보험협회.
- 11) Beck, S.(1984).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Differentials in opportunity and use. *J. of Gerontologist* 39, 596-602.
- 12) Gale, W. & Scholz, J.K.(1994). IRAs and household sa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5), 1233-1260.
- 13) Hefferan, C.(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ERJ* 11(1), 47-55.
- 14) Hira, T.K.(1987). Money management practices influencing household asset ownership *JCSHE* 11, 183-194.
- 15) Hubbard, R.G. & Skinner, J. & Zeldes, S.P.(1994). Why Do People Save? Expanding the Life Cycle Model: Precautionary Saving and Public Polic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174-179.
- 16) Kilty, K.M. & Behling, J.H.(1986).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The Gerontologist* 26, 525-530.
- 17) Malrouu, Y.L. & Xiao, J.J.(1995). Perceived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CP* 6, 17-24.
- 18) Mitra, S.(1993). *Practicing financial planning - A complete guide for professionals-* Michigan: M & A.

-
- 19) Turner, M.J., Bailey, W.C. & Scott, J. P.(1994).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retirement and retirement planning among midlife university employees.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3(2), 143-156.
- 20) Weagly, R.O. & Gannon, C.F.(1991). Investor portfolio allocation. *FCP* 2, 131-154.
- 21) Xiao, J.J.(1995). Patterns of household financial asset ownership. *FCP* 6, 99-106.
- 22) Zhong, L.X. & Xiao, J.J.(1995). Determination of family bond and stock holdings. *FCP* 6, 107-114.